

음식과 수행



콜레스테롤 낮추는 구기자차 효능

비타민C 오렌지보다 500배가량 많이 함유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 만성피로

간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어

오미자는 많이 들어보았지만 구기자에 대해서는 약간 생소한 경향이 있는데 예로부터 하수오, 인삼과 더불어 구기자를 3대 명약으로 불렀을 정도로 그 약성은 대단하다. 이번 호에서는 구기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구기자차는 열매, 줄기, 잎, 뿌리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효능은 오렌지보다도 500배가량 많이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C가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피를 맑게 하여 고혈압, 동맥경화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폴리페놀, 카로티노이드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며 구기자 추출물이 콜라겐을 구성하는 물질의 합성을 도와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미를 억제하고 주름을 개선하는 등 노화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수면부족과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 만성피로를 호소하는 경향이 많은데 구기자 속의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 성분으로 인해 과일계의 비아그라라고 불릴 정도로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구기자차는 당뇨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성분(자아닌틴, 베타인, 유라실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구기자차를 음용할 경우에는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어느 정도는 제어할 수가 있다.

구기자차의 효능 중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간 기능 개선과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항 지방간 작용을 하는 베타인

성분이 풍부하여 지방간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고 간 기능을 보호하며 간세포의 지방 침착을 억제하고 간세포의 생성을 촉진하여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준다. 베타카로틴 성분은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구기자 속에는 이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하여 각종 안질환은 물론 시력회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백내장 초기 증상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중금속도 배출시켜

이 외에도 중금속 배출에 도움을 주며 위장 기능을 높여주기 때문에 입맛을 좋게 하여 소화가 촉진되게 한다. 게다가 구기자차는 장벽을 해도 별탈이 없기 때문에 꾸준하게 음용을 하면 혈당을 낮추고 이뇨, 해열, 변비, 가래, 천식을 완화하고 기침까지도 멈추게 하는 효능이 있다.

다만, 주의할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참고를 바란다. 첫째, 속이 차고 소화기관의 기능이 떨어진 사람이 과량 복용 시에는 복통과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며, 둘째, 염증이 있는 경우에도 열이 더 심해져 염증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음용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

음용방법은 차로 먹을 경우에는 반드시 2시간 이상을 다려야 구기자 속의 좋은 성분들이 나온다. 구기자 속의 영양분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구기자를 끓이지 않고 분쇄기에 갈아서 방풍실에 보관하고 가루로 섭취하는 것이다.*

이승우 기자



입문 수기



그날은 영민 언니 집에서 자고, 그 다음날 주님을 뵈고 나의 사정을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러면 오늘부터 집에 가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고, 대기실(비서실)에서 일을 해”라고 하시며 대기실에 근무하고 있던 언니들과 승사님에게 “막내가 들어왔으니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대기실 생활은 시작되었다.

3개월 정도 지난 후 주님께서 지방제단에 가신다고 하여 대기실에서 일하던 언니가 “그러면 막내가 김포공항에 가서 표를 끊어”라고 하셨습니다. 공항에는 처음 온 것이라 두리번두리번 거리며 주위를 살피고 있는데 조금 후 주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주님께 인사를 드렸더니 나를 보시더니 “한눈 팔지 말고” 하시는데 주님께서 두리번거리는 내 마음을 꿰뚫어보시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대기실에 있는데 전화벨 소리와 함께 “여기 서을 시청이야, 내가 대구제단에 가려고 하나가 비행기 표를 끊어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택시를 잡아타고 짹짜게 공항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차 운전기사님이 나를 보시더니 “주님 벌써 떠나셨다.”라고 하시기에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어떻게 나보다 더 빨리 오셨을까? 시청은 역곡보다 훨씬 시간이 더 걸릴텐데’ 그래서 속으로 이분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다. 주님께서 초창기에 청량리에서 역곡까지 5분 만에 날아오신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행기는 활주로에 내리고 올라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5분 만에 오신 것은 비행기보다 더 빨리 온 것이었는데 내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주님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신다는 말이 믿어졌다.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닌 주님

그렇게 2년 정도 대기실에서 생활하다가 3층 공장으로 발령이 났다. 처음에는 미싱사를 보조해주는 시다와 검사 일을 하다가 미싱을 하게 되었다. 주님께서 공장에 매일 오셔서 조회를 보시면서 우유를 나눠 주셨고, 또 영생의 희망과 소망을 주시며 영생의 확신에 찬 말씀을 해주시니 공장생활이 참 기뻐졌다. 그리고 공장 밥이 그렇게 꿀맛일 수가 없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밥이라서 그런지 더욱 맛이 있었다. 여러 언니들도 대기실에 있다가 온 아이라고 특별히 귀여워하며 잘해준 덕분인지 늦게까지

마지막회, 보광은 마귀를 속이는 고도의 전략



이근식(앞줄 오른쪽 둘째)님은 합창단 소프라노로 활동하고 있다

지 하는 날이 많아서 몸은 힘이 들었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힘이 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지내다가 미싱을 하게 되었는데 오랫동안 앉아 있으니 운동 부족인지 번비가 생겨 얼굴이 노래지면서 어지럼증까지 생겨서 급기야 쓰러진 일도 있었다. 그래서 한약을 지어 먹었는데 약에 주님 얼굴을 새기고 먹으니 빠르게 회복이 되었다.

미싱에 소질도 없고 활동적인 나의 성격과 체질에 맞지 않아서 잘 하지는 못했지만 하려고 노력해도 잘 안 될 때는 남 몰래 공장 뒷골목을 돌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다. 한 공정 배우고 울고, 한 공정 배우고 울고, 미싱이 이렇게 힘든 줄은 몰랐다. 그래서 공장 뒷골목인 꽃동네에 잠지로 담장을 두른 골목길이나 나의 위안길이 되어버렸다. 그렇다고 매번 울고만 있을 수는 없고 끈기와 인내로 노력에 노력을 하여 조금 익숙해지니 재미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3층 공장 직원들을 둘러보시는 중에 내 옆에 오셨다. 주님께서는 “힘들지” 하시며 위로를 해주셨는데 나는 “힘 안 들어요”라고 대답했다. 나의 마음을 환히 아시는 주님이신지라 힘들게 이겨내는 미싱사 일을 대견하게 생각하며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1차 육고를 치르시고 나오신 후 우연히 본부제단 여청외에도 공장식 구로서는 모 여청 한 명과 같이 들어가게 되었다. 나는 본부 여청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비서실에 근무하시는 분이 자꾸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가도 되나 하면서 들어가게 되었다. 주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던 중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근식, 3

층에서 전도 열심히 해”라고 말씀하셨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그래서 나는 크게 “네”라고 대답하였다. 3층공장에서 나오는 수익금의 대부분이 주님께서 전도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이니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곧 전도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이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힘들도 끝까지 삼층에서 참고 견디며 열심히 일하는 것이 최선의 전도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

마귀 속이는 고도의 작전일지도

이 세상이 영생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주님과 더불어 살 것 같았는데 갑자기 주님의 보광소식을 들었을 때 슬프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말 못할 하나님만의 사정이 있다고 생각했다.

주님 보광 후 한동안 우울한 마음으로 지내다가 예배 시 설교 말씀 중 주님께서 웃으라고 하시어 억지로라도 웃기 시작하니 당장 허전한 마음은 달래지지 않았지만 마음의 평화가 오면서 평소 애한 마음이 생각났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쓰고 와서 구원의 역사를 하시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본체로 환원하는데 “인간은 못 봐 하나님인 된 사람이나 볼 수 있지 하나님이 되지 못한 사람은 못 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날 하나님을 알고 영접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는 지옥이야”

나는 이 길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았다. 주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치에 딱 맞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전지전능한 능력을 보면 믿지 않을 수가 없다. 주님께서 보광(普光)하셨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주변에서는 속았다는 생각에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승리제단 모든 재산을 팔아서 신도들에게 나눠줘야 한다고까지 말을 했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지금 제단에 남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 모두가 주님을 배신하고 마귀의 길로 갔다.

2008년까지 기다렸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겠다고 친한 동료도 있었다. 그가 말하기를 영육일체(靈肉一體)라고 했는데 주님이 돌아가셨으니 거짓말 아니냐며 제단을 떠나겠다고 할 때 나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느냐, 모든 것이 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주님 말씀대로 살면 영생은 보장되는 것 아니냐, 설령 끝까지 이 길을 가다가 주님께서 너는 죄가 많으니 지옥에 가라고 해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며 설득했지만 내 말을 듣지 않고 기어이 떠나갔다.

나도 집에서 큰 언니가 전화해서는 주님이 돌아가셨으니 이제 끝내고 집으로 오라고 했던 일이 있다. 그때 나는 언니에게 그건 우리 인간의 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정은 아니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대답했다. 나는 영생을 포기할 수 없으니 끝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어쩌면 주님은 마귀들을 속이고 승리하기 위해서 보광하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보광 후 구원의 역사 계속 돼

주님께서 보광하셨어도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활하면서 절실히 느낀다.

하루는 작업을 하는 중에 고개를 숙이고 미싱을 하다 보니 목도 아프고 어깨도 빠근하여 쉬는 시간에 고개를 들어위를 바라보면서 기지개를 펴는데 천장을 보게 되었다. 거기에 우담바라가 20여 송이가 피어 있었다.

우담바라는 불교 금강경에 의하면 3000년에 한 번 피는 꽃이며 생미륵부처님을 상징하고 생미륵부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알리는 꽃이라고 했다. 공장에서도 해마다 형광등 위에, 미싱 위에, 사무실 꽃 위에, 기사실에, 제단상 천장에 흰색, 검은색 우담바라도 피었다. 어떤 우담바라는 10여 년이 지났어도 처음 그 모습 그대로 있었다.

이것을 보아도 영생의 역사가 분명함을 알 수 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 되는 방법, 이긴자가 되는 방법들을 기억하면서 더욱 신앙에 매진하기를 다짐해본다.* 이근식 / 보광패션

7월 1일 강연회 성공을 위해 노력합시다



노고산과 소래산 사이 밀실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전지전능성을 잃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신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 요한서 3장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는 구절을 보아 하나님의 전지(全知)하심을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라는 구절을 보아 하나님의 전능(全能)하심을 찾아볼 수 있다. 이밖에 성경에서 하나님을 전능자로 묘사한 구절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전지전능자로 계셨지만 지금으로부터 육천년 전에 선악과라는 마귀 영에게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전지전능자라는 말은 유령무실(有名無實)하게 되었다. 이하하여 마귀가 하나님을 점령하고 하나님을 썩살날들로 분열시키자 이 세상의 만물이 생기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죄인들이 사는 마귀세상이니 이별과 눈물이 없는 하나님

내가 아는 전지전능자와 영생을 쟁취한 이긴자 조희성님

의 세상이 아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력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기록된 성경 창세기는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창세기를 보면 에덴동산에 아담과 해와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계셨다고 한다. 에덴동산이 하늘나라요 천국인므로, 천국이 되는 에덴동산에 아담과 해와가 있었다면 아담과 해와의 신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말씀과 짝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도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 이렇게 세 분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지, 에덴동산에 살지 않은 예수를 포함하여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이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왜 인간은 자기 자신의 주체성이 마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까

에덴동산에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두 분 하나님(해와와 아담)이 선악과라는 마귀 영에게 사로잡히게 되자, 해와와 하나님은 여자 사람이 되었고 아담 하나님은 남자 사람이 된 것이다. 현재 인간들은 자기 자신이 전에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고 있는데, 이렇게 된 배경에는 마귀가 하나님을 점령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마귀의 음란한 영이 섞이어서 변질된 형태 즉 음양의 사람(하나님 영과 마귀의

영의 병존체)를 구성할 때, 마귀의 영은 사람을 주관하는 주체의식으로 등극하고 하나님의 영은 주체의식인 마귀 영의 조종에 따라 평생 종노릇하며 생명력을 공급하다가 결국 탈진하여 죽음에 이르게끔 프로그래밍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듯이, 욕심이 죄라면 욕심 자체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의식이 욕심을 부리니까 ‘나’라는 의식은 욕심의 근본이 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욕심이 죄라면 ‘나’라는 의식은 원죄요 선악과라는 답이 꼭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교의 극기복례나 불교의 무아경지 그리고 성경에서 ‘나를 항상 버려라’고 한 것은, 나라는 의식이 선악과요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교에서 ‘나’가 도통을 하고 ‘나’가 극락세계에 가는 줄 알고 있으니, 이는 기왓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겠다는 격이다.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나’라는 것이 누구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고 있으니, 어떻게 ‘나’라는 마귀가 누구를 잘 믿는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세상에는 종교가 없었다.”고 이긴자 조희성님은 외치는 것이다. 승리제단에서 사람 몸이 죽지 않는 영생의 확신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망의

신이 되는 ‘나’라는 의식을 제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나’라는 마귀를 죽이는 이슬성신을 내리는 주인공이 계시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람이란 하나님 영과 마귀 영의 병존체인데, 이긴자의 이슬성신에 의해서 ‘나’라는 주체의식이라는 마귀 영이 완전히 제거되면 사람 속에 순수한 하나님의 영만 남게 된다. 그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으로 원시반본(原始反本)한 빛의 존재로 화하게 되어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날다니다며, 한국 땅에서 지구중심을 통과하여 반대편의 미국으로 순식간에 이동하며 이렇게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채 영원무궁토록 희락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다.

조희성님이 전지전능자요 완성자라는 증거

조희성님은 ‘나’라는 것이 마귀라는 사실을 깨닫고 반대생활을 철저히 함으로써 결국 극기(克己)에 성공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과 생명 전체를 맡기는 신앙의 최종단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주장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맡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맡겨주시옵소서!”라는 온전한 기도를 하심으로 비로소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 잃어버린 전지전능성을 되찾게 된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간이 합쳐져 하나가 되

지 않았다는 것은 성령이 되는 빛으로 거듭났다는 증거이다. 그 당시 오십의 나이에 육신이 빛이 되는 하나님의 성체(聖體)로 변한 것이다(연단과정 중에 손톱과 발톱이 다 빠지고 하나님의 피로 바뀌는 현상이 있었음). 그때 밀실에서 아담 이긴자를 키우시던 해와 이긴자께서는 방 안에서 바로 아래 조희성님의 숙소를 비추어보시고, 당장 조희성님에게 달려와서 빛으로 환한 아담 이긴자에게 ‘밀실에서 연단받고 있던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지적하여 죄를 담당하라’고 지시하였다. 조희성님이 받잡을 자지 아니하고 해와 주님이 지적한 사람의 죄를 담당하자, 신기하게도 빛의 성체(聖體)였던 삼위일체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사람의 형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나는 전지전능자와 영생을 쟁취한 이긴자 조희성님의 보광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

이때부터 인간 몸을 입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얼굴 형상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속의 병마(病魔)가 소멸되어 죽음이 나고 정욕이 일어나지 않는 동시에 약한 마음도 사라져 양과 같이 순해지는 체험이 일어나는 것이다. 동시에 영생의 확신이 생겨남을 스스로 느끼게 되는데, 이는 전지전능자가 부여하는 이슬성신의 은혜로 인하여 ‘나라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마귀의 이념, 즉 ‘나’라는 주체의식이 어느 정도 제거된 까닭이다.*

박태신 기자